

동성왕[東城王]

웅진 천도 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다

미상 ~ 501년(동성왕 23)



임류각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동성왕(東城王)은 백제의 제24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479년~501년이다. 백제는 웅진 천도 후 5년 동안 2번이나 왕이 교체되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동성왕은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말년에 측근정치를 강화하고 사비천도를 계획하면서 귀족들과 마찰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반대파의 핵심인 백가(昔加)에 의해 시해되었다.

2 동성왕의 가계와 즉위과정

동성왕은 이름이 모대(牟大)인데, 이름을 따서 모대왕(牟大王)이라고도 불린다. 그 외에 『삼국사기』에 마모(摩牟)라는 이름이 전하고, 『삼국유사』에는 마제(麻帝) 혹은 여대(餘大), 『일본서기』에는 말다(末多)라고 기록되어 있다. 시호는 동성왕이다. 삼근왕이 재위 3년 만에 죽자,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479년에 왕위에 올라 501년까지 23년간 백제를 다스렸다.

동성왕의 아버지는 곤지(昆支)이다. 곤지에 대해서는 개로왕의 아들이라는 기록과 동생이라는 기록이 전하는데, 대체로 동생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문주왕(文周王)이 시해되고 그의 아들인 삼근왕(三斤王)이 13세의 나이로 즉위했지만, 삼근왕 역시 3년 만에 죽고 말았다.

곤지는 461년(개로왕 7)에 왜로 파견되어 476년까지 15년 이상을 왜에 머물렀다. 『일본서기』의 기록에 의하면 왜에 가는 도중에 낚은 무령왕을 포함해 다섯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 둘째가 바로 동성왕이다. 동성왕은 곤지가 백제로 돌아올 때 함께 귀국하지 않고 계속 왜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삼근왕이 사망하자 축자국(築紫國)의 군사 5백과 함께 돌아와 왕위에 올랐다.

관련사료 이 때 동성왕의 나이는 10대에 불과하였다.

동성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인 곤지의 영향력이 컸다. 웅진 천도 후 백제의 혼란상은 해구(解仇)의 권력 농단에서 비롯되었다. 해구는 문주왕을 시해하고 어린 삼근왕을 옹립했으나, 곧이어 반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해구의 전횡과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왕족과 귀족, 신진세력들이 힘을 모았는데, 이미 사망한 곤지와 그의 아들 모대(동성왕)는 그 중심점이 되었다. 게다가 왜의 동성왕 지지는 고구려의 위협 속에서 군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한 방편이었다는 점에서 동성왕의 즉위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국내외 지지세력의 도움으로 왕